

책세상에서 2002년 1월부터 런칭을 시작한(제1차분의 초판 발행일이 2002년 1월 1일이다) '고전의 세계'는 오늘날, 새로운 시각으로 고전을 읽지는 취지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기획물이다.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첫 번째 권으로 내면서 시작한 이 시리즈는 최근 주희의 《인설(仁說)》에 이르기까지 스물여섯 종이 나왔다. 인문 출판 시장이 전에 없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한 현재적 지반을 충격하고 생산적인 성찰을 추동하는 이 시리즈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기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책세상 김광식 주간이 '고전의 세계' 기획의 변을 보내왔다.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읽어야 할 운명의...

김 광 식 _ 책 세 상 주 간



고전에 대한 조롱 섞인 고전적(?) 정의 가운데 하나는 “누구도 읽지 않는 그러나 항상 읽어야 할 책으로 권장되는 책”일 것이다. 물론 이런 종류의 조롱 섞인 지적에는 통념의 발생과 정은 물론 당대적 가치가 예리하게 스며들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투의 경구적 표현은 흔히 그렇듯 원래의 풍자 의도를 넘어서 그 의미가 확대, 재생산되어 하나의 가치판단적 명제로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고전에 대해 이렇게 오도된 인식에 도전하는 것이 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의 출발점이다.

책세상문고를 기획할 때 가장 고심했던 측면 가운데 하나가 현재 우리시대, 고전의 세계, 세계문학으로 나뉜 세 개의 섹션을 처음부터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문고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일정 부분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전략적 측면에서는 통합작업이 좀더 용이했지만, 한국 출판의 역사-특히 문고 시장의 역사를 볼 때 책세상문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새로운 필자군의 발굴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역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미래를 위해 생산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전이 오래되고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는 책이란 것은 그 가치의 지속성 혹은 항구성을 함의하며, 두껍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고전이 대체로 한 시대의 총체적 결산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명저라는 개연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고전이 반드시 두꺼운 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를 기획할 때 주의를 기울인 대목이다.

세계사를 움직인 고전은 때로는 짧은 문건이나 선언서일 수도 있고, 한 인물의 가장 깊은 사색의 결과는 그가 가까운 친구와 주고받은 서간문일 수도 있다. 또 한두 편의 논문에 한 사상가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고전은 대체로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고전이 시간을 뛰어넘어 읽히고 연구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해석의 풍부함 때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고전이 당대의 일회적 문건과 구분되는 중요한 기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래되고 대체로 두꺼우며 어려운 고전을 왜 읽어야 하는가? 고전은 학문 연구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물론 아니다. 고전은 유서 깊고, 전형적이며, 권위 있는 저술이다. 그러나 고전이 이러한 자격조건을 지니기 위해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특수한 성격의 대중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전이 지닌 모종의 독특한 대중성을 새롭게 발견하자는 것이 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기획취지다. 즉 고전의 영원성과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거나 전문가들의 영역에 감금되었던 독특한 대중성을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고전의 또 다른 얼굴을 찾아나가자는 것이다.

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는 동서양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모든 뛰어난 학자와 저술가는 그의 연구 분야와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든 뛰어난 ‘사상가’일 수밖에 없다)들의 주저는 물론 논문, 편지, 팸플릿 등 그의 사상의 핵심을 담은 다양한 형식의 글을 번역하고 단순한 역자의 글을 뛰어넘는 논저 수준의 전문가의 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저로 알려진 책을 제외한 이러한 형식의 글들은 지금까지 대체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던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저자의 사상의 정수를 선연한 필체로 압축된 분량에 담아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글들을 선정해서 고전에 접근하는 좀더 대중적인 길을 닦고자 한다. 요컨대 지금껏 대중을 내리놓려온 고전의 두꺼운 무게는 털어내면서, 동시에 흥미롭고 감동을 주는 고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적 편식과 편향성을 극복하는 데 약간이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이라는 공간과 시간 안에서 고전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실제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원 텍스트의 형식에 따라 다분히 가변적인 형태의 책이 탄생할 수도 있다.

- (1) 전문적인 독자를 제외한 일반 독자들은 거의(또는 전혀) 읽을 수 없는 대작의 주요 부분의 발췌 번역— 이 경우 발췌하는 부분은 주저의 입장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이어야 한다. —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Kritik der reinen Vernunft》 서문





- (2) 핵심적 사상을 드러내거나 그의 사상에 대한 입문적 성격의 소개자. __ 루카치의 <솔제니친 Solschenizyn>
- (3) 역사를 움직인 세계사적 선언 또는 핵심적 사상을 담은 문건. __ 1978년 프랑스 인권 선언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당 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 (4) 간단한 서한의 형식을 빌려 사회 개혁을 불러일으킨 편지. __ 루터의 <독일제후에게 보내는 편지>
- (5) 한 권의 책으로 묶기에 적합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논문. __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 러셀의 <지침>

물론 한국과 동양의 고전 역시 같은 형식으로 출간될 것이다. 모든 원고는 책을 번역한 전문학자의 논저에 준하는 형식의 글과 같이 편집될 것이다. 역자가 책의 내용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번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포함한다.

- **들어가는 글** : 텍스트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용어해설** : 글의 특성상 용어해설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전문적인 해설 대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설명이어야 한다.
- **옮긴이주** : 주석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지학적 목록 나열을 지양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 **더 읽어야 할 자료들** : 문고의 특성상 책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이 고전과 관련된 다른 도서를 참고하고, 관련된 주제에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실는다. 이 자료는 변화하는 독서풍토를 고려하여 웹사이트나 잡지류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각 참고자료는 서지사항뿐 아니라 자료에 대한 역자의 간단한 논평을 덧붙인다.
- **해제** : 200자 원고지 100~200매 내외로 해제는 단순한 내용요약이 아닌 텍스트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자세한 해설로, 독자가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제 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는 막 그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첫권으로 주희의 <인설>까지 26권이 출간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독자들의 호의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처음 책세상문고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이 10년 후 또는 더 긴 시간이 흘렀을 때도 유지될 수 있는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책세상문고- '고전의 세계' 는 광대한 고전의 숲으로 향하는 작은 징검다리일 뿐이다. 독자들이 이 징검다리를 통해 본격적인 고전-아무도 읽지 않는 그러나 누구나 읽어야 할 운명의 책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출판**

이 글을 쓴 김광식은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광사 편집부에서 일을 배우면서 출판일을 시작했다. 한동안 '여름새벽' 이라는 출판 기획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1993년부터 10년째 책세상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만든 책으로는 '밀리터리 클래식' (전11권), '릴케전집' (전12권), '위대한 작가들' (진행중), '니체전집' (전22권 - 진행중) 등이 있다.